마음의 노예가 되면 세세생생 벗어날 수 없다

☞ 21면에서 계속

야 내가 움죽거렸다고 하겠습니까? 소장입니까, 대장입니까? 전체가 나 아님이 없는 겁니다. 한 군데서만 파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각각 본다면 파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립이 되니까. 이건 대립이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애고라든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런 게 모두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건데 그것을 대치하려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가 나오게 한 거니까 네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내가 마음을 쓰는 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움직일 때 우리가 그냥 따를 뿐이지 어디로 다니는 줄 우리가 압니까? 무엇을 하고 다니는 줄 압니까? 그렇듯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다 직결해서 '네가 하는 일이니까 네가 잘해야 되잖아. 이끌어 가야 되잖아.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이끌어 가야 네 심부름을 잘하잖아.' 하고 그대로 놓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우주를 한꺼번에 집어 먹고, 집어 먹을 것도 없이, 버릴 것도 없이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된다 이 소립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서 '해인(海印)의 증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큰 바다에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입해서 한마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바다에는 도장을 찍어도 찍은 사이가 없고 찍을 사이가 없건만도 찍은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몽땅 '당신이 옳소' 하고 찍는 거와 같죠. 왜냐? '옳소' 하는 거는 둘로 봐서 옳소가 아닙니다.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몽땅 한데 합쳐 한자리를 파악한 것이 바로 해인입니다.

한 가족 안에 아들딸들이 전부 아버지를 찍지 누굴 찍습니까?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한 가족으로 본다면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둘로 보지 않고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자비가 줄줄줄줄 그냥 흐르고 있으니, 그대로 합일이니까 그대로 도장이죠. 허허허….

그러니까 너 나를 가른다면, 잘못하고 잘하는 걸 가른다면 합일이 될 수 없죠. 잘한다고 한다면 항상 못하는 게 거기 끼어들고, 못한다고 한다면 잘하는 게 끼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끝이 안 나요. 그러니 공부하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내막을 파헤쳐 본다면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요걸 보세요.

지수화풍도 우리에게 당장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사는 것은 물주머니에서 사는 거와 같습니다. 물에서 사는 생물들 모두가 그냥 물주머니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 물로 인해서 공기가 되니까, 우리도 이 물주머니에서 사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뭐든지 거기에서 이탈을 한다면 다른 병고가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는 수십억 마리의 마음도 내 마음 한마음에 다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죠.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어떤 꿈을 꿨다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 잘 먹겠다." 이러기에, 다른 친구가 꿈을 안 꾸고도 그런 꿈을 꿨다고 꿈 얘길 하니까 "아, 너는 매를 진탕 맞겠다." 했죠. 그래서 정말로 매를 진탕 맞고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매를 맞게 됐습니까?" 하고 또 가서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꾸민 것도 꿈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둘로 보지 않고, 어떤 귀신이 닥친다, 어떤 애고가 닥친다, 어떤 유전성이 닥친다 하더라도 '허허,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자기가 한생각에 돌려놓으세요. 둘이 아니라면 모든 게 그냥 하나로 돼 버려요, 흔적도 없이. 불에 어떤 것을 넣든 타 버리듯이. 물이 증발되듯이.

여러분은 어떠한 게 닥치면 관습에 의해서 '아,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게 있죠?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여직껏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이건 못 하고 하고가 항상 따르게 마련이죠. 진짜로 믿고 들어가는데 하고 못 하고가 어딨습니까? 내 생명이 그냥 이 자리에서 앗아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허!" 할 뿐이죠. 내가 둘로 본다면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지만, 둘로 보지 않는다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갈 것도 없죠.

그런데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를 못 믿어요. 다른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허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왜 자기는 못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가는 그놈을 자기가 왜 못 믿습니까? 배가 고파서 밥 먹게 하는 놈, 듣게 하는 놈, 보게 하는 놈, 말하게 하는 놈, 일을 하게 하는 놈, 하기 싫게 하는 놈, 싸움을 하게 하는 놈, 성이 나게 하는 놈, 이 모든 놈들이 전부 한 놈입니다, 한 놈!

그거를 표현을 하기를 "아버지가 될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나, 또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자식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사위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했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말도 뜻도 행도 그렇게 바뀌지면서 돌아가는데 어떤 딴 놈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 일체 만법이다,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놈이, 한 놈이 그렇게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벌어진 것을 용도에 따라서 들이고 내는 데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니까. 그 한 놈이 누구입니까? 그 한 놈이 바로 우주를 싸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 허공중에 공 하나가 둥둥 떠 있는데
> 그 공 속에서 우리는 갇혀 살고 있어요.
> '이 공 속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소서!' 하고
> 육법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얘기했죠? 일체 만물은 연결 연결 연결 돼서 바로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으로서, 공식화(共食化)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설이 돼 있는 것이라고요. 각자 마음마다 가설이 돼 있다구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하면 둘이 되죠? 그러나 부처님 법이 따로 없이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 법이라고 놓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면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천당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돼지같이 살면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뱀같이 살면 뱀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공부를 증득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가락에 꿰고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질문 모두가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억겁을 통해서 바로 인연이 된 것입니다. 이 컵에도 이것이 컵이 아니었더라면 물을 담지 않을 것인데, 컵이 됐기 때문에 물을 담는 것입니다. 요것이 인연입니다. 매사에 정말, 조금도 틀림없이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누가 만드느냐. 즉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인연을 만드는데,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좋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매양 나쁜 걸로만 아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매양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꾸자꾸 마음을 내 준다면 선한 길로 접어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끌어서 건져라." 이런 말이죠. 이 모두가 사람사람이 인연에 따라서, 차분하고 너그럽고 지혜롭고 자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게 전부 한마음이 돼 주고, 악하게 마음을 쓰고 '저것 요것' 하면 악한 사람으로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오고 감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차안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마음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자꾸자꾸 바뀌진다구요. 사람이 사람으로만 있지 않고 짐승이 짐승으로만 있지 않는다구요. 그러니 한 찰나에 살 것을 그렇게 해서 딴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그 습성에 또 매여서 착이 되고 습성이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거북이 물에 가라앉았다가 천 년에 한 번 떠오를 때에 구멍 뚫린 뗏목 하나를 만나서 그 구멍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로 인연이 돼서 만난 것도 수억겁을 거쳐서 된 겁니다. 여러분은 99%나 부처님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부처님이 될 수 없을까, 있을까?' 이러지 마시구요, 그대로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가신다면 그대로 부처죠, 뭐. 안 그렇습니까?

자식놈에게 자꾸 휘둘리게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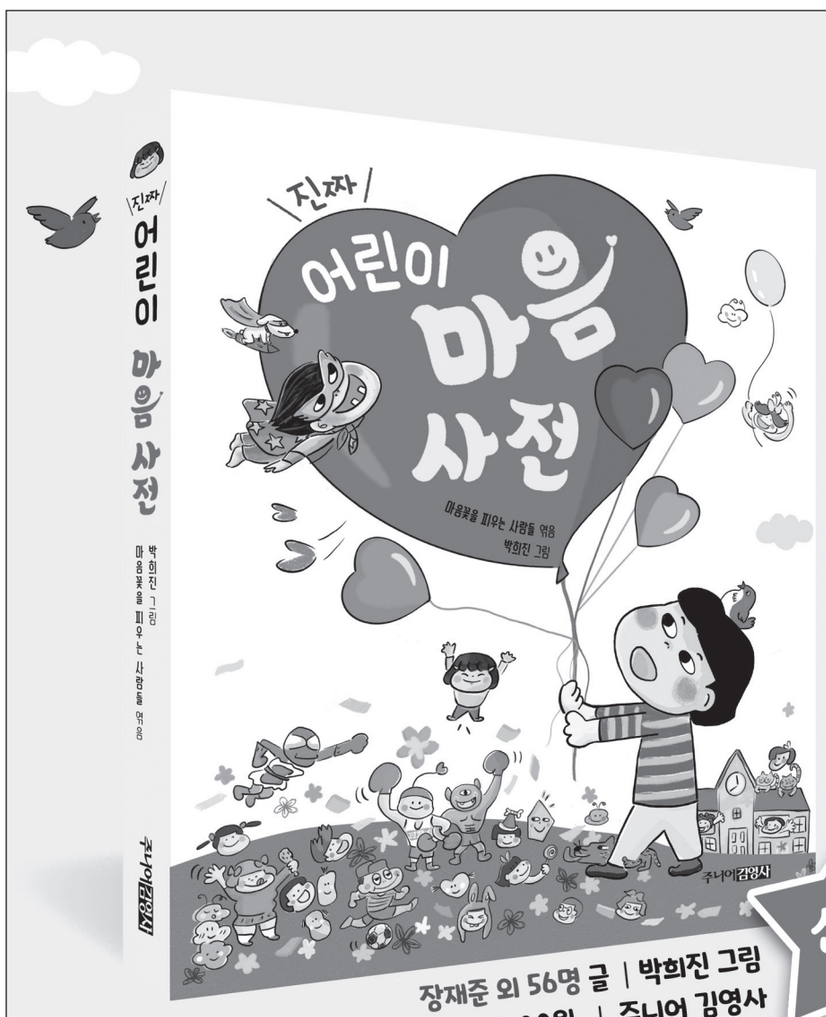
질문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웬만한 건 잘 관하고 놓게 되는데 이 자식놈이 자꾸 알짱거리며 속을 썩이는 데는 잘 놓아지지 않고 자꾸만 자식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착을 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답변 허허허. 이거 보세요. 자식놈의 물질적인 육신이 까닥까닥하는 거지, 마음이 나와서 그렇게 까닥까닥합니까? 아니, 그 육신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까닥까닥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 너 까닥거리지 마라.', 허허허,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놓으면 슬며시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육신은 움죽거릴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의 놀음이니까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지, 육신을 잡으려고 하거나 말로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가서 안 들어오든 나가서 공부를 안 하든 그게 걱정이 안 될 만하게 원력이 서야 걱정이 안 되죠. 권투선수가 권투 실력이 아주 극치에 도달했을 때에는 상대가 누가 온대도 걱정이 안 되죠. 만약에 그게 설익었으면 걱정이 되죠. 온통 그냥 떨리고 부자연스럽고 무겁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설익지 않았다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까닭에 걔네들은 잔잔하게 그냥 돌아가요, 또. 걱정이 없는 까닭에 그 마음하고 다 이렇게 통하니까요.

그러니 사는 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일이 생긴다 하면 걱정이 되지 어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돼도 바깥으로 온통 이렇게 풍기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익은 사람들은 안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부지런히 육신도 뛰면, 그냥 걱정 없이 뛰면 그냥 해결이 되고 싹 무마가 돼 버리죠. 그러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쳐 놓고 움죽거리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사는 세태다 이겁니다. 지금 가부좌를 틀고 좌선을 하고 앉았다면 앉아 있는 그 동안만 우주가 돌아가고, 또 일어났을 때는 우주가 안 돌아갑니까? 그러니 섰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자나 깨나, 돌아가는 건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공이 없이 생각하면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거기다 놓곤 태연히 그냥 '날 잡아잡수.', 허허허, '하늘이 무너진대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뛰란 말입니다. 그것을 말로다가, 생각으로다가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잡아집니까, 그게? 생전 안 잡아지지.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